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꽃할배 '구야형'의 매력속으로~

tvN '꽃보다 할배' 배우 신구



"내가 비교적 근엄하고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전에 시트콤에 출연한 다음부터는 조금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꽃보다 할배'를 통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스물 네시간 카메라가 따르는 리얼 버라이어티 출연은 그에게도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법하다. "부담스러웠어요. 카메라가 잠에서 깨면 서부터 바로 옆에 따라다니니까요. 마이크도 계속 달고 있고, 갑갑하고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 지나니까 신경쓰지 않게 됐어요."

해 새롭게 느끼 부분이 있을까. "장르를 막론하고 연예 프로그램은 재미 있어야 해요. 순간적인 기지나 유머가 합쳐져서 재미를 줘야 하는데 나는 그런게 부족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은 예능이나 연기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건강함 아침', '한국기행', '미안미안 로봇',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such as '기분과 특별한', '내신 6강', '포스',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providing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보아 '연애 허당'으로 안방극장 데뷔

KBS 2부작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서 최 다니엘과 연기 호흡

가수 보아(시진)가 KBS 2TV 2부작 드라마 '연애를 기대해'(극본 주화미, 연출 이은진)로 안방극장에 정식 데뷔한다. 드라마 홍보사는 19일 "보아가 '연애를 기대해'의 여주인공을 맡았다"며 "보아가 주연으로서 정극 연기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쾌하고 진솔하게 그려 예정이다. 보아가 연기하는 주연에는 연애험 할배마다 매번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연애 허당'이다. 보아의 상대역인 연애 전문가 차기대는 배우 최다니엘이 연기한다. 이은진 PD는 "보아의 진중할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에 매료됐다"며 "연기가 보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V 하이라이트

문명을 떠난 휴식 여행 '루마니아'



세계테마기행(EBS TV 오후 8시50분)은 동유럽의 보석상자, 루마니아 1부 '매혹의 땅, 트란실바니아'편.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즐거운 착각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루마니아 곳곳에는 그림 같은 중세의 건물들이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도시 시비우. 그 옛날 미하이 비데아주 영주가 루마니아 3공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투를 마친 후 축배를 들었던 식당에서, 수백 년간 루마니아의 입맛을 지켜온 전통 음식을 맛본다.

보수가 필요한 아이들의 울타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TV·오후 5시35분)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단대우리지역아동센터다. 이곳에서는 매주 숲 체험활동, 골목길 생태학교 등 아이들이 몸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센터 프로그램은 단대동 논골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바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도와 센터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고 있는 것. 나 혼자만 아닌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센터. 그러나 센터 곳곳에는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낡고 찢어진 장판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기에 위험하고, 오래된 창틀은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다.

서민의 삶 노래한 가수 '오기택'



그때 그 사람(채널A TV·오후 8시30분)은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며 한 시대를 품미한 가수 오기택. 1960년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앞만 보며 고된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시절,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는 가수가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오기택이다. '영등포의 밤' '고향무정' '아빠의 청춘' 등 서민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로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오기택. 그러나 어느날 한 방송사 피디의 증언으로 노름에 빠졌다는 구설수에 오르면 출연허 정적을 감추고 만다. 세상에 노랜만 남기고 자취를 감춘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